소비자들 장보는데 걸리는 시간은?

백화점·마트 80분, 전통시장 45분

육류는 대형마트… 과일·채소는 전통시장 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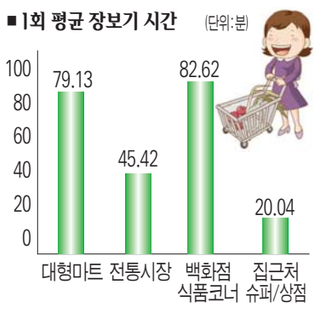
"냉동식품은 마지막에 구입해야 식중독 예방"

소비자들이 대형마트나 백화점 식품코너에서 장볼때 평균 1시간20분 이상 걸려 전통시장의 2배 가까이 긴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소비자들이 월 평균 장을 보기 위해 찾는 횟수는 집 근처 슈퍼마켓이나 전통시장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보다 훨씬 많았으며, 과일·채소 구입은 전통시장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전국 609가구를 대상으로 식품구입 형태 및 장보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 1회 평균 장보는데 걸리는 시간은 백화점 식품코너가 83분, 대형마트는 80분, 재래시장은 45분, 집 근처 슈퍼마켓은 20분으로 조사됐다. 월평균 장보는 횟수는 집 근처 슈퍼마켓이나 상점이 8.16회, 전통시장은 6.05회, 대형마트는 월평균 3.76회, 백화점 식품코너는 2.60회로 집계됐다.

식품종류별 구입장소를 살펴보면 육류의 경우 대형마트(61.2%·중복응답)에서 구매비중이 높았으며, 과일 및 채소류 구입장소로는 전통시장(55.8%·〃)을 대형마트(53.2%·〃)보다 조금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입한 식품을 집까지 운반하는 방법으로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식품코너에서 장을 본 경우는 약 75 %의 응답자가 '차량을 이용한다'고 했으며, 전통시장에서 장을 봤을 때는 73.1%가 '걸어서 운반한다'고 답변했다.

구입한 식품을 집까지 운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백화점 식품코너에서 구입한 경우가 약 28분으로 가장 길었으며, 대형마트 약 20분, 전통시장 약 16분, 집 근처 슈퍼마켓 약 9분으로 조사됐다.

식품을 사는 순서를 묻는 질문에는 '특별한 순서 없이 구매한다'가 47.1%로 가장 많았고, '냉장·냉동식품을 먼저 구매한다'(5.1%), '냉장·냉동식품을 나중에 구매한다'(47.6%)로 나타났다.

식약청이 직접 구매한 식품을 실온(25℃)에서 방치해 시간별로 식품 온도를 조사한 결과, 육류·어패류·가공식품 등이 60분 이내에 약 20℃까지 온도가 올라갔다. 이와 관련 식약청은 식중독 등 예방을 위해 냉장·냉동보관 식품 및 상하기 쉬운 식재로는 가능한 마지막에 구입하고 구매시간은 1시간을 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8월 8일은 '포도데이' 광주신세계 이마트는 5일 1층 과일매장에서 8월 8일 '포도데이'를 앞두고 당도 높은 캠벨 포도를 선보였다. '포도데이'는 농협과 한국포도생산자협의회가 포도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8'이라는 숫자가 포도알처럼 생긴 것에 착안해 만든 날이다. 〈광주신세계 제공〉

지역 축제장에 이동우체국

전남체신청 순천·강진 등서 금융·우편 서비스

전남체신청은 5일 지역 축제장에서 금융과 우편 거래가 필요한 고객을 위해 이동우체국(Moving Post)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우체국에서는 우체국 창구와 똑같이 자동화기기 이용, 현금 입출금, 이체, 해외 송금, 공과금 납부, 우편물 발송 등의 업무를 볼 수 있다.

지난 4일부터 순천 아시아태평양잼버리 행사장에 설치한 이동우체국은 이곳을 찾은 각국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좌우로 확장할 수 있도록 개조한 신기한 이동차량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사진〉

오는 6일까지 운영하는 아시아태평양잼버리 행사장의 이동우체국은 오전 9시부터 업무를 시작해 우편은 오후 6시까지 금융은 오후 4시 30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또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는 강진청자축제 행사장에도 이동우체국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남체신청 관계자는 "이들 축제장 외에도 홍수나 폭설 등 재해.재난이 발생한 지역에는 최우선으로 이동우체국을 설치해 금융.우편 서비스 등을 통해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동우체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남체신청 예금영업과(062-600-4874)로 문의하면 된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은행-저축銀 정기예금 금리

0.52%P 차… 역대 최소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예금 금리 격차가 바짝 좁혀졌다.

외환위기 직후 두 업권의 금리가 역전됐던 시절을 제외하면 역대 최소 수준이어서 안정적 수익을 바라는 예금 투자자의 향배가 주목된다.

신규 자금을 끌어들일 여유가 줄어든 비은행권에서 예금 금리 인상이 주춤한 사이 은행들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을 전후해 공격적인 수신 확보 경쟁에 나선 결과다.

5일 한은에 따르면 저축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지난 6월 평균 연 4.24%로 집계됐다. 같은 달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와 견줘 0.52%포인트 높았다. 이런 금리 격차는 외환위기로 '살인적' 고금리를 겪었던 1998년 상반기를 제외하면 사실상 역대 최소 수준이다. 당시에는 은행이 저축은행보다 예금 금리가 더 높은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

저축은행과 더불어 비은행 예금취급 기관의 다른 한 축인 신용협동조합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신협과 은행의 예금 금리 격차는 지난 4월 1.32%포인트에서 5월 0.88%포인트, 6월 0.53%포인트로 작아졌다. /연합뉴스

기업전용 BIZ카드 인터넷 정기예금

光銀 새상품 출시

광주은행이 5일 기업전용 카드인 'BIZ 명품카드'와 인터넷 전용 예금상품인 'U-스페이스 정기예금' 등 2종의 신상품을 출시했다.

BIZ 명품카드는 기업 카드이면서 2~3개월 할부가 가능하고, 광주·전남 주요 백화점이나 할인점에서 무이자 할부 서비스도 제공된다. 또 별도의 부담없이 부가세 환급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광주은행의 사업자전용 통장인 '비즈니스클래스 통장'을 카드 결제계좌로 지정하고 전달 기준 100만원 이상 BIZ명품카드를 사용하면, 영업시간 이후 자동화기기 인출 수수료 면제는 물론 전자금융 수수료도 일부 면제된다.

U-스페이스 정기예금은 인터넷뱅킹을 통해 24시간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 금액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인터넷전용 예금이다. 1개월부터 최장 3년제로 가입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100만 원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윤영기기자 penfoot@

현금서비스 이어 카드론 수수료도 폐지

신용카드사들이 현금서비스에 이어 카드론 취급수수료를 잇달아 폐지하고 있다.

5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하나SK카드가 이달 들어 카드론 취급수수료를 폐지한 것을 비롯해 올해 들어 상당수 카드사가 현금서비스에 이어 카드론 취급수수료를 없앴다.

신한카드가 지난 6월 카드론 취급수수료를 없앤 데 이어 7월에 삼성카드, 국민은행, 외환은행, NH카드 등이 최고 3.5% 수준에 달하던 카드론 취급수수료를 폐지했다.

지방은행도 광주은행, 전북은행 등이 이미 카드론 취급을 중단했거나 수수료를 없앴다.

이로써 카드론 이자율은 조금 떨어져 6~27%에 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KB카드 고향길 사랑축제

추석 무료 귀성버스 운행

KB카드는 올해 추석에도 고객들에게 무료 귀성버스를 제공하는 'KB카드와 함께하는 고향길 사랑 대축제'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17회째를 맞이하는 KB카드의 무료 귀성버스 행사에는 광주를 비롯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 21개 주요 도시 왕복노선에 80대가 운행된다. 귀향 편은 다음 달 2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용산 전자상가 관광버스 터미널에서 출발하며 귀경 편은 다음 달 23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21개 귀성버스 도착지에서 출발한다.

무료 귀성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원은 오는 29일까지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이벤트 존에서 도착지와 출발시각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연합뉴스

보험사 저축성보험 금리 요지부동

금리인상후 14곳 중 2곳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후 은행, 저축은행 등이 일제히 예금 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보험사의 금리는 꿈쩍하지 않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저축성 보험을 판매하는 14개 생명보험사 중 이번 달 공시이율을 올린 곳은 단 2곳에 불과했다. 공시이율은 저축성 보험에 적용되는 금리로 매달 초 공표된다.

공시이율이 연 4.6%로 업계 꼴찌였던 kdb생명이 연 4.7%로 올렸으며, AIA생명이 연 4.7%에서 4.75%로 0.05%포인트 올렸을 뿐이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효과가 보험사들에게는 거의 미치지 않은 셈이다.

생명보험업계의 올해 상반기 저축성 보험 판매액은 2조6000여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의 1조3000여억원보다 배로 늘었다. /연합뉴스